4/ 일본 '레즈비언 전후사' 다시 읽기

'성욕'이라는 관점의 결여에 관하여

스기우라 이쿠코

스기우라 이쿠코(杉浦郁子) 1969년생. 와코(和光)대학 현대인간학부 준교수. 주오(中央)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로 여러 대학의 강사를 거쳐 2012년 4월부터 현직에 재직하고 있다. 주된 연구 테마는 섹슈얼 마이너리티, 젠더 마이너리티의 사회적 포섭 등이며 'NPO법인 공생사회를 만드는 섹슈얼 마이너리티 지원 전국네트워크'의 이사다. 연구로는 「レズビアンの欲望 / 主体 / 排除を不可視にする社会について: 現代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差別の特徴と現状」, 「男の猥談に現れる女の性欲: 1960年代雑誌記事の『レズビアン』言説」, 「『性同一性障害』概念は親子関係にどんな経験をもたらすか―性別違和感をめぐる経験の多様化と概念の変容に注目して」 등이 있다.

1. 들어가며: 관심의 소재

근대 이후 일본에서 '여성 간의 친밀성'은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거기에 어떤 명칭이 부여되었고 그것에 관한 어떠한 언설이 이어져왔는가. 이 글은 그 전개를 살핀 기존의 역사 기술이 '섹슈얼리티의 역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특히 1970년대 이후의 레즈비언 운동사를 '섹슈얼리티의 역사'로서 재고해야 하는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먼저 논문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동성 간의 친밀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고찰한 연구는 일본에서는 남성 간의 친밀성에 관한 것이 먼저였다. 푸코의 '섹슈얼리티의 역사' 시리즈[1]에 촉발되어, 그 일본판에 해당하는 연구가 1990년대 중반에 잇달아 발표되었다. 예를 들면 이 논문에서도 참조한 오다 료(小田亮), 가와무라 구니미쓰(川村邦光), 후루카와 마코토(古川誠) 등은 '성욕(性欲) se-i-yo-ku'로 번역된 '섹슈얼리티'의 영역이 일본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수용되었는지에 주목하고, 근대 일본 형성기에 '성욕'이라는 관념으로 사람들의 행위나 경험을 이해하게 된 과정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후루카와의 연구는 동성애 사회사 분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그는 남성 간의 육체적 교류가 '동성 성욕'이라는 관념을 매개로 병리화되고, 다이쇼기에 '동성애자'라는 성적 주체가 탄생한 것에 주목했다.[2] 후루카와 이후 여성 간의 친밀성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는데, 전전(戰前)을 대상으로 한 완성도 있는 연구로는 2011년 아카에다 가나코(赤枝香奈子)가 발표한 논고를 들 수 있다.

사실 필자는 1970년대에 성립된 일본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활동을 기

1 일본에서는 1986~1987년에 걸쳐 푸코의 「성의 역사」 시리즈가 번역 출판되었다. ミシェル·フーコー, 渡辺守章 訳, 『知への意志(性の歴史 1)』, 新潮社, 1986; ミシェル·フーコー, 田村俶 訳, 『快楽の活用(性の歴史 2)』, 新潮社, 1986; ミシェル·フーコー, 田村俶 訳, 『自己への配慮(性の歴史 3)』, 新潮社, 1987.

2 古川誠, 「同性愛者の社会史」, 『わかりたいあなたのため社会学·入門 ―常識破 壊ゲームとしての社会学·全20講座』, 宝島社, 1993, 218~222쪽; 古川誠, 「セクシュアリティの変容: 近代日本の同性愛をめぐる3つのコード」, 『日米女性ジャーナル』 17, 1994, 29~55쪽; 古川誠, 「同性『愛』考」, 『イマーゴ』 6(12), 1995, 201~207쪽 등.

록하고, 그것이 현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의 주제로 삼아왔다. 1960년대를 연구의 기점으로 삼았고, 그 이후의 언설사와 운동사를 정리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레즈비언에 관한 것이지만 '섹슈얼리티의 역사' 연구는 아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일반 잡지에 게재된 레즈비언에 관한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언설사 연구[3]는 레즈비언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언설의 변용을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레즈비언의 성욕이나 성행동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었다.

또 필자의 레즈비언 운동사 연구[4]는 1970년대 이후의 레즈비언 아이덴티티 정치학에 관한 것으로, 레즈비언이 발신한 정보를 차별에 대한 대항언설로 분석했다. 물론 1970년대 이후의 일본 레즈비어니즘에 관한 연구는 필자의 연구 이외에도 존재한다.[5] 그러나 선행 연구의 역사기술은 과거를 검증하고 그것을 토대로 동시대적인 활동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언어를 차별과 연결지어 평가했고, 그것을 (레즈비언이나 여성의) '성욕'이라는 영역과 경험을 창출하는 언설로서

3 杉浦郁子, 「一般雑誌における『レズビアン』の表象 ―戦後から1971年まで」, 『現代風俗学研究』 11, 2005, 1~12쪽; 杉浦郁子, 「1970、80年代の一般雑誌における『レズビアン』表象 ―レズビアンフェミニスト言説の登場まで」, 矢島正見 編著, 『戦後日本女装·同性愛研究』, 中央大学出版部, 2006, 491~518쪽; Sugiura Ikuko, "Lesbian Discourses in Mainstream Magazines of Post-War Japan: Is Onabe Distinct from Rezubian?", *Journal of Lesbian Studies*, 10(3/4), 2006, pp.127~144.

4 杉浦郁子, 「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フェミニズムの活動 ―1970年代後半の黎明期における」, 『ジェンダー研究』 11, 2008, 143~170쪽; 杉浦郁子 編, 『日本のレズビアン·コミュニティ ―口述の運動史』 (財団法人東海ジェンダー研究所 2007年度個人研究助成 成果報告書), 2009.

5 広沢有美, 「日本初のレズビアン·サークル『若草の会』その15年の歴史と現在」, 『女を愛する女たちの物語 ―日本で初めて！234人の証言で綴るレズビアン·リポート』(別冊宝島64), JICC出版局, 1987, 111~119쪽; 久田恵, 「元気印のレズビアン『れ組のごまめ』登場！」, 『女を愛する女たちの物語 ―日本で初めて！234人の証言で綴るレズビアン·リポート』(別冊宝島64), JICC出版, 1987, 120~129쪽; 渡辺みえこ, 「日本における女性同性愛の流れ ―あとがきにかえて」, 渡辺みえこ他訳, 『ウーマンラヴィング』, 現代書館, 1990, 184~189쪽; 敦賀美奈子, 「『れ組スタジオ·東京』での8年間」, 『imago』 6(12), 1995, 46~51쪽; 富岡明美, 「訳者解説」, リリアン·フェダマン / 富岡明美·原美奈子 訳, 『レスビアンの歴史』, 筑摩書房, 1996, 384~393쪽; 出雲まろう / 原美奈子 / つづらよしこ / 落合くみ子, 「日本のレズビアン·ムーヴメント」, レズビアン / ゲイ·スタディーズ』(『現代思想』 臨時増刊) 25(6), 1997, 58~83쪽; 「1971~2001 年表とインタビューで振り返るコミュニティの歴史」, 『anise』 2001年夏号, 28~78쪽; 飯野由里子, 『レズビアンである〈わたしたち〉のストーリー』, 生活書院, 2008; Hitomi Sawabe, "History of Lesbian Activism and Publications in Japan," Barbara Summerhawk and Kimberly Hughes (ed.), *Sparkling Rain: And Other Fiction from Japan of Women Who Love Women*, 2008, pp.6~32 등의 연구가 있다.

는 바라보지 않았다.

다시 말해 레즈비언에 관한 '섹슈얼리티의 전후사'는 일본에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 '여성 간의 친밀성' 연구라는 말을 들으면 '성적인 것'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이제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레즈비언이나 여성 동성애를 둘러싼 '섹슈얼리티의 전후사'를 기술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루어온 1960년대 이후의 자료들을 '성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욕'의 관점이란 다이쇼기에 정착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되어 온 '성욕'이라는 개념이 '여성 간의 친밀성'이나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에 관한 언설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 개념을 세로축에 둠으로써 여성 동성애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의 전후사를 그려낼 수 있고, 나아가 전전사와의 (비)연속성을 관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의 전후사'라는 연구 영역의 서론으로, '여성 간의 친밀성',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에 대해 근대 일본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 왔는가를 '성욕'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해 기술하고자 한다. 시기는 1910년대부터 일본 레즈비어니즘이 발생하기 전인 1960년대까지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1910년대~1960년대까지의 관련 연구를 개관한다. 여기서 명확해지는 것은 여성 동성애의 전전사를 '섹슈얼리티의 역사'로 기술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그러나 전후에는 육체관계를 함의한 레즈비언의 개념이 보급됨으로써 그 상황이 일변한다는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1960년대 보급된 레즈비언을 대중매체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잡지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레즈비언의 '수동적이지 않은' 성욕이 문제시되었음을 밝힌다. 이것은 레즈비언 구성원의 변화를 분석했던 필자의 연구 일부를 '성욕'의 관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4장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잡지매체의 언설 상황과 레즈비어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한다. 그리고 레즈비언을 성적으로 주체화하거나 객체화하는 언설의 다이내믹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되어 온 운동을 섹슈얼리티의 역사로서 다시 읽는 현대적 의의를 고찰한다.

2. '동성애'에서 '레스비언'으로: 1910~1960년대

앞서 기술한 대로 전전의 상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는 아카에다 가나코(赤枝香奈子)의 저서가 있다. 아카에다[6]는 근대 일본 형성기(1910년대~1930년대)의 자료를 검토해 여성 간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를 밝혔다. 먼저 아카에다가 연구의 기점으로 한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통속성욕학 붐과 '동성애' 개념: 1910~1920년대

1910년대와 20년대는 일본에 '통속성욕학 붐'이 일었던 시기다. 1910년대에 서양의 성과학서가 번역되기 시작했고, 192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인이 쓴 '성'에 관한 서적이 등장했으며 잡지의 발행도 잇따랐다. 서적 출판과 잡지의 발행으로 '성욕'[7]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성욕을 둘러싼 방대한 논의가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통속성욕학은 '성욕'이라는 '과학'의 언어가 통속화되었다는 이유에서 붙여진 용어다.[8]

통속성욕학은 무엇보다도 '성적 신체(신체는 성적이다)'라는 개념—인간의 신체는 성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성욕에 이끌려 연애나 결혼, 성교나 생식을 둘러싼 모든 활동을 한다는 사고방식[9]—을 널리 퍼뜨렸다. 또 통속성욕학은 성욕을 정상/이상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주력[10]했는데, '동성애(同性愛) do-u-se-i-a-i'라는 일본어는 이상한 성욕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1920년대 통속성욕학 붐 가운데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6 赤枝香奈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同士の親密な関係』, 角川学芸出版, 2011.

7 '성욕'은 현재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 sexuality의 번역어로서 '성적인 본능/욕망/충동' 등의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였다고 한다. 가와무라 구니미쓰(川村邦光)는 1907년에 출판된 다야마 가타이, 『이불』(田山花袋, 『蒲団』), 후타바테이 시메이, 『평범』(二葉亭四迷, 『平凡』), 산부인과 의사인 오가타 마사키요의 『부인가정위생학』(緒方正清, 『婦人家庭衛生学』)이 '성욕'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세간에 유포된 것이 이 시기라고 추정했다(川村邦光, 『セクシュアリティの近代』, 講談社, 1996, 88쪽).

8 古川誠, 「恋愛と性欲の第3帝国—通俗的性欲学の時代」, 『現代思想』 21(7), 1993, 110~127쪽.

9 澁谷知美, 『立身出世と下半身—男子学生の性的身体の管理の歴史』, 洛北出版, 2013, 21쪽.

10 小田亮, 『性(一語の辞典)』, 三省堂, 1996, 55~56쪽.

있다.[11] 당시 정상이 아닌 이상한 것으로 분류된 성욕은 '변태(変態) he-n-ta-i 성욕'으로 총칭되었다.

'동성애'라는 말이 등장하기 이전, 남성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은 몇 가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남색(男色) na-n-sho-ku'이라는 말이 메이지시대까지 대중적인 표현으로 쓰였다. 그것은 '성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남성 간의 깊은 정신적·육체적 교류'[12]를 의미했다. 1890년대까지 남색은 여학생과의 교제나 성행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착실한 남학생들 사이에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유행했다고 한다. '남색'과 대치되는 말로는 '여색(女色) nyo-sho-ku'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성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특히 게이샤나 유곽의 여성)과 갖는 성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남색/여색'은 성인 남성을 중심에 두고, 그 성적 대상이 남자(소년)인가 여자(유녀)인가를 구별하는 개념으로,[13] 남성의 행위에만 해당하는 말이었다.

그에 반해서 다이쇼기에 정착된 '동성애'는 남성과 여성, 양쪽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1900년대에 들어서자 남성 간의 육체적인 접촉은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라고 하여 문제시되었다. 호모섹슈얼리티는 '동성 교접', '동성적 색정', '동성(간) 성욕' 등으로 번역되다가 1920년대에 '동성애'라는 단어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남색'에서 '동성애'로, 더구나 '동성(간) 성욕'이 아니라 '동성애'로[14] 정착해 갔던 것이다. 성욕을 인간의 신체를 지배하는 본질로 간주하고, 거기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했던 통속성욕학[15]이 '성욕'이 아닌 '사랑'(愛)이라는 말을 채용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여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이것이 동성애 사회사를 연구했던 후루카와 마코토의 고찰이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99(메이지 32)년 여자중등교육제도의 편성으로 1900년대에는 여학생

11 古川誠, 「同性『愛』考」.
12 前田直哉, 『男の絆 —明治の学生からボーイズ·ラブまで』, 筑摩書房, 2011, 25쪽.
13 古川誠, 「同性愛者の社会史」.
14 古川誠, 「同性『愛』考」, 206쪽.
15 川村邦光, 『セクシュアリティの近代』, 82쪽.

이 급증했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여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여자는 남자보다 우애의 정이 두텁다', '여자끼리 사이가 좋은 것은 당연하다'라는 젠더의 규범이 작용했고, 여학생 간의 관계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의 번역어로 육체적인 뉘앙스가 강한 '교접(交接) ko-u-se-tsu', '색(色) i-ro', '성욕(性欲) se-i-yo-ku'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는 '사랑'이 채용되었던 이유는 여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를 시야에 넣었던 탓이 아닐까.[16]

2) '동성애' 개념의 여성화: 1930년대까지

후루카와는 동성애 개념이 정착되고 난 후 1930년대까지는 '동성애를 여학생의 전유물'[17]로 보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자는 아카에다 가나코였다. 아카에다는 당시 상황을 동성애 개념의 '여성화'라고 부르고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또 어떠한 언설이 출현했고, 그것은 어떤 사회적 기능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18]

1910년대에 일본에 도입된 서양의 성과학은 호모섹슈얼리티를 두 종류로 나누었다. 하나는 '후천성 = 가성(仮性)'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천성 = 진성(眞性)'이다. 이 도식은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당시 여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는 '오메', '오데야', '에스'[19] 등으로 불렸고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1910년대에는 여학교라는 장소가 호모섹슈얼리티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여학생 간의 관계는 '가성'

16 古川誠, 「セクシュアリティの変容」, 43~45쪽; 古川誠, 「同性『愛』考」.

17 古川誠, 「同性『愛』考」, 207쪽.

18 이하 6개의 단락은 赤枝香奈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同士の親密な関係』 제4~6장(101~206쪽)의 내용 중, 「동성애 개념의 여성화」에 관한 부분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19 '오메'의 어원은 '오메데타이'(경사스럽다), '오메니카카루/오메니카케루'(만나뵙다/보여드리다), '오메카케'(첩) 등을 추측할 수 있고, 1911년에 '남자 같은 여자'라는 뜻으로 '오메'(男女)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오데야'는 '데야'라는 말에 경어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어 '오'를 붙인 것으로,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에스'는 S, sister(자매)의 첫 글자로, '시스', '시스터'라고 하기도 했다. 당시, 여학생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은어는 이 외에도 다수 존재했다.

으로 판단했고, 일시적이고 정신적인 것, 이성애로 향하는 단계적 현상으로 간주했다. '진성'은 남성화된 여성들의 것, 즉 영속적이고 육욕적인 것, 선천적이고 교정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등한시되었다.

'가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다양한 논의도 있었는데, 아카에다는 그 실천자인 여학생들의 언설과 그녀들을 관리한 교육자의 언설에 주목했다. 성과학이나 통속성욕학에서는 '병리'로 규정된 관계였지만, 여학생들은 이를 지지했고 교육자들도 허용했다고 한다. '동성애' 관념의 여성화는 그러한 언설의 효과로 등장한 것이다.

당사자인 여학생이 동성애를 지지했던 것은, 그것이 "'대등성'이나 '자주성', 다시 말해 '자유'나 '평등'과 같은 근대적 이념에 기초한"[20] 인격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성과학에서 말하는 '병리'가 자신들의 실천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서"[21]였는지, 성과학적으로 정상인지 여부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다. 그것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22]라는 관점에서 자신과 친구의 관계를 열심히 음미했다고 한다. 그녀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간주하고 지향한 것은 '돈'이나 '동정'과 같은 '세속'이나, '야만', '하층'을 연상시키는 '육욕'이 아니라 '미', '섬세함', '정신성' 등과 연결되는 플라토닉한 '순애'였다.

아카에다는 이러한 관계가 선호되었던 것은 그것이 결혼과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시 중산계급의 결혼은 의무적인 것이었고, 부부관계는 자유, 대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근대적인 자아에 눈을 뜬 '개'(個)로서의 여성이 이상적인 관계를 실현할 수 있었던 곳은 혈연·지연과도 무관하고 장래의 결혼 압력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여학교뿐이었다. 여학생들은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단순한 우정'이나 '병리'로 간주하는 바깥세상의 기준을 차단하고, 그것을 로맨틱 러브(romantic love)로 받아들임으로써 독자적인 인간관계의 규범을 만들어갔던 것이다. 그것

20 赤枝香奈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同士の親密な関係』, 187쪽.
21 赤枝香奈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同士の親密な関係』, 194쪽.
22 赤枝香奈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同士の親密な関係』, 167쪽.

이 이른바 여학교 문화였다.

한편, 교육자들은 여학생과는 다른 입장에서 여학교 안의 친밀한 관계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학교 측은 친밀성을 경험함으로써 '여성스러움'이 교육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아카에다의 분석이다. 여기서 '여성스러움'이라 함은 "근대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을 담당하게 될 여성이 갖추어야 할 자질, 즉 타자에 대한 배려와 협력, 그리고 가정 운영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주성"[23]이다. 여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는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헌신하고 애정을 쏟는 것, 즉 여성에게 부여된 젠더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24]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애정이라는 덕목을 갖춘 여성'[25]으로 성장하기 위한 한 단계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여학교의 동성애 언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중산계급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여성상과 여학교의 교육적 목표다. 여학생들이 지금은 비록 '미완성'일지라도 훗날 가정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녀들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즉, 전전의 동성애는 '여성의 성욕'이 아니라 '여성스러움'을 묻는 관점, 바꾸어 말하면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젠더를 문제로 삼는 개념으로서 유통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성 간의 친밀성을 발달 단계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여학생 간의 관계를 남녀관계의 전 단계로 보는 인식 구조는 그야말로 헤테로섹시즘(heterosexism)의 체현이다. 헤테로섹시즘은 이성애를 절대시하고 그것을 전제로 남성의 능동성과 여성의 수동성의 결합으로 성립된 성관계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규범이다.[26] 이 규범의 영향권에서는 여성은 무조건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에 의해 성욕에 눈을 뜨게 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여성의 주체적인 성욕은 사회에서 사라져버리기 쉽다. 결혼 전 여학생들의 친밀한 관계가 성욕과는 무관한 것도, 주체적인 성욕을 '발견'한 여성이

23 赤枝香奈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同士の親密な関係』, 190쪽.
24 赤枝香奈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同士の親密な関係』, 201쪽.
25 赤枝香奈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同士の親密な関係』, 205쪽.
26 江原由美子, 『ジェンダー秩序』, 勁草書房, 2001, 138~158쪽; 竹村和子, 「資本主義とセクシュアリティ―[ヘテロ]セクシズムの解体へ向けて」, 『思想』 879, 1997, 71~104쪽.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이 아닌 존재'로 밀쳐진 것도 헤테로섹시즘의 일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속성욕학은 인간의 신체에 '성욕'이라는 내면적 속성을 채워 넣었지만, '성욕의 존재 양상은 남녀가 다르다'는 헤테로섹시즘도 더불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나 여성 간의 친밀성에서 '능동적인 성욕'을 읽어내기를 주저했다. "여성 간의 성욕은 얕고 넓으며, 남성 간의 성욕은 깊고 좁다",[27] "여성의 애정은 육체보다는 정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육체의 쾌락을 희생한다"[28]라는 식의 지식을 근저에 두었고, 여성 간의 관계의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무해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처녀 때로 한정된 것', '여학교와 같은 특수한 환경의 영향으로 누구나가 경험하는(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29]으로 간주했다. 그에 반해서 육체적 접촉을 상정한 남성 간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유해한 것,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사이에만 드러나는 것"[30]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전의 일본에 침투된 것은 일반적인 '동성애'라기보다 '남성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동반한 헤테로섹시즘이었던 셈이다.

젠더 비대칭으로 구축된 성욕은 여성 동성애를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나 '다정한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험' 등, '여자인 것/여자가 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표상시켰다. 이러한 언설 뒤에서 여학생들이 성적인 쾌락을 향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동성애 언설로서 등장했던 것은 젠더 규범이다. 아카에다의 연구를 통해서 여성 동성애의 전전사를 섹슈얼리티의 역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레즈비언의 등장과 동성애의 변용: 전후~1960년대

여성 동성애의 전전사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동성애가 명백한

27 羽太鋭治 · 澤田順次郎, 『変態性欲論』, 春陽堂, 1915, 230쪽.
28 羽太鋭治 · 澤田順次郎, 『変態性欲論』, 231쪽.
29 小田亮, 『性(一語の辞典)』, 三省堂, 1996, 85~86쪽.
30 小田亮, 『性(一語の辞典)』, 85쪽.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성욕이나 성행위를 지표로 여성을 분류하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가성이든 진성이든 전전의 동성애는 그 여성들이 어떠한 성체험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여성을 분절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전후에 등장해 1960년대 후반에 확산된 '레스비언 re-su-bi-a-n'[31]은 처음부터 육체관계를 함의하는 개념이었다. 여성 간의 친밀성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전전과 전후가 크게 다르다.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정착하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하게 개괄해 보기로 하겠다.

성욕을 주제로 한 책과 잡지의 출판 붐은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로 인해 잠시 단절되었다. 그러나 전후 부흥기(194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성을 과격하게 묘사한 가스토리잡지[32]가 대량으로 간행되었다. 1950년대 초반에는 '변태성욕'을 테마로 한 잡지가 연이어 창간되었다.[33] 성을 다룬 미디어가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1940년대 후반에는 전전에 '에스'로 알려졌던 여학생의 동성애가 육욕적인 이미지로 그려졌고 성인 여성 간의 관계가 포르노그래피로 그려지게 되었다고 한다.[34]

1950년대에는 그동안 동성애 언설이 기대고 있던 참조항의 근원지가 달라졌다. 전전의 통속성욕학이 '과학적 권위'로서 인용했던 것은 크래프트에빙(Richard Freiherr von Krafft-Ebing)이나 엘리스(Henry Havelock Ellis) 등 유럽

31 '레스비언 re-su-bi-a-n'은 1967년경부터 '레즈비언 re-zu-bi-a-n'으로 표기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 '레즈비언'으로 정착되었다. 이 글에서는 1966년까지의 기술에서는 '레스비언'을 사용하고, 1967년 이후의 기술(3-3 이후)에서는 '레즈비언'을 사용한다. '레스비언'이 '레즈비언'으로 바뀐 배경은 赤枝香奈子, 「戦後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カテゴリーの定着」, 『セクシュアリティの戦後史』,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4, 140~142쪽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32 가스토리 잡지란 1946년 10월부터 1949년 6월까지 발행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읽고 버리는 책을 말한다. 조악한 종이를 사용했고, 에로(성풍속)·그로테스크(엽기)한 내용을 특징으로 한다(松沢呉一, 「カストリ雑誌と『ガロ』の永井さん」, 『性メディアの50年―欲望の戦後史ここに御開帳！』(別冊宝島 240), 宝島社, 1995, 23~31쪽).

33 下川耿史, 「街頭のエロ写真売りはどこに消えた?」, 『性メディアの50年―欲望の戦後史ここに御開帳！』(別冊宝島 240), 宝島社, 1995, 32~36쪽; 石田仁, 『戦後日本における「男が好きな男」の言説史―雑誌記事にみる表象とそれを支える解釈枠組みの変容』(中央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博士学位論文), 2006, 91쪽.

34 赤枝香奈子, 「戦後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の可視化」, クィア学会第5回大会パネル「レズビアンと生存―可視 / 不可視と生死の交差」(2012. 11. 25), 神戸市看護大学.

의 성과학이었는데, 1950년대 이후에는 킨제이(Alfred Charles Kinsey)로 옮겨 갔다. 미국 백인 남녀의 성행동을 조사해 정리한 이른바 『킨제이(Kinsey)보고서』가 1950년대에 번역 출판[35]되었고, 이는 동성애 언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동성애의 사회사라는 관점에서 『킨제이보고서』가 특별했던 것은 '동성애 관계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라는 인식을 제시했던 것, 여성 간의 관계에 육체적인 접촉이 있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전전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변화시켰던 것이다.[36]

또, 『킨제이 보고서』는 여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지시하는 언어로서 '레스비언'을 사용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 외래어는 그다지 일반화되지 못했고, 거기다가 마치 프랑스에서 유행할 법한 우아하고 지적인 신체적 접촉이라는 이미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전면에 드러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자 대중잡지의 기사가 '레스비언'과 일본의 구체적인 사항을 연결시켰다. 예를 들면 정신적인 '에스'가 육체관계가 있는 '레스(비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쇼치쿠(松竹)나 다카라즈카(宝塚) 가극단의 남자역, 그 역할을 동경하는 소녀를 '에스' 나 '레스'와 관련지었다. 당시에는 남장을 한 여성이 손님을 접대하는 가게가 증가하기도 했는데 이를 '레스비언 바'라고 불렀다. 그리고 바에 모이는 여성도 '레스비언'이라고 불렀다.[37]

1960년대 후반에는 '레스비언'이 '프리섹스' 붐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프리섹스'라는 말은 1960년대 중반에 일본 저널리즘에 등장했다고 추정되는 일본산 영어다. '결혼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성 교섭'을 의미한다. 당초에는 "성교육이 발달하고 십대의 성관계에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북유럽 나라들의 방식"[38]을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남성 미디어는 이것을 바

35 『킨제이보고서』의 번역은 남성 편이 1950년(アルフレッド·C. キンゼイ等著, 永井潜·安藤画一共訳, 『人間における男性の性行為』(上·下), コスモポリタン社, 1950), 여성 편이 1954년(アルフレッド·C. キンゼイ等著, 朝山新一等訳, 『人間女性における性行動』, コスモポリタン社, 1954)에 출판되었다.

36 赤枝香奈子, 「戦後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の可視化」.

37 赤枝香奈子, 「戦後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の可視化」.

38 斎藤光, 「フリーセックス」, 井上章一·関西性欲研究会, 『性の用語集』, 講談社現代新書, 2004, 206쪽.

로 '난교', '뒤틀린 성' 등으로 표현했고, 남성의 망상을 자극하는 토픽으로 사용했다고 한다.[39] '레스비언'도 '프리섹스'의 실천자 중 하나로 보고, '문란한 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육체관계와 이상성(異常性)이 강조되었다.[40]

이와 같이 전후 잡지매체는 여성 간의 친밀한 관계를 사회적(social)인 관계에서 섹슈얼한 관계로 바꿔갔다. '레스비언'은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경우였다. 1963년의 한 기사[41]는 '레스비언'에 '여성 동성애자'라는 주를 붙였다. 전전에 여성의 젠더를 묻는 개념이었던 동성애는 1960년대에 '레스비언'과의 접합으로 섹슈얼리티를 묻는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여성 간의 친밀한 관계는 '레스비언'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의미가 덧붙여졌다.

3. 1960년대의 '레스비언' 표상

이 장에서는 1960년대 '레스비언'이 무엇을 문제로 한 개념이었는가를 잡지기사를 참고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42] 잡지매체의 '레스비언' 언설이 여성의 어떤 섹슈얼리티를 문제로 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명백해지는 것은 성적 주체화가 교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남성의 불안과 그런 불안의 근저에 있는 헤테로섹시즘이다.

덧붙이자면, 이 장에서는 졸고[43]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이 논문의 목적

39 斎藤光,「フリーセックス」, 206~208쪽.

40 赤枝香奈子,「戦後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カテゴリーの定着」, 146~148쪽.

41 「東京同性愛地帯のインテリ女性たち―バラ十字会のメンバー2人の告白から」,『週刊現代』, 1963年 8月 1日号, 86~89쪽.

42 자료 수집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가설이지만, 전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레즈비언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언설화는 잡지매체(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킨제이보고서』나『마스터즈보고서』(1966) 등 해외 성행동 연구가 잡지기사에서 참조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과학, 의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과학이나 학교, 법률, 종교 등의 제도가 레즈비언의 섹슈얼리티의 언설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달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우먼리브』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문제로 삼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는 다른 미디어 공간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한다.『우먼리브』와 레즈비어니즘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문으로 정리할 생각이다.

43 杉浦郁子,「一般雑誌における『レズビアン』の表象」; 杉浦郁子,「1970~80年代の一般雑誌における『レズビアン』表象」; 杉浦郁子,「男の猥談に現れる女の性欲 ―1960年代雑誌記事の『レズビアン』言説」, 中河伸俊·赤川学 編,『方法としての構築主義』, 勁草書房, 2013, 115~133쪽; Sugiura Ikuko,

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했다.

1) 개념의 인칭화를 통해 본 인식의 틀의 변용

기사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1960년대 들어 '레스비언'이 인칭화된 점부터 살펴보자. 1950년대의 '레스비언'은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는 유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킨제이 보고서』 여성 편(일본어 역)에서는 '레스비언 러브', '레스비언 클럽' 등 형용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44] 그것은 주로 '관계'의 존재 양상을 둘러싼 개념이었다. 그런데 앞서 서술한 1963년의 기사에서 '레스비언'에 '여성 동성애자'라고 주를 달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45] 1960년대에 '레스비언'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레스비언의 지시 내용이 '관계'에서 '사람'으로 변화한 것이다.

인칭으로서의 레스비언은 여성 간의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로 이끄는 '사람'의 존재, 나아가서는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성욕'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여성의 성욕에 바탕을 두고 여성의 성관계나 성행위를 이해한다는 추론의 패턴을 만들어갔다. '레스비언'이 인칭화됨에 따라 여성의 성적 신체(성욕을 가진 신체)를 가시화하는 개념이 된 것이다.

그런데 성적 신체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여성이 주로 어떠한 여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욕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다이쇼기에는 '남녀의 부도덕한 관계를 성욕에 기인한 사회문제'[46]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예를 들면 동반자살, 자살, 사랑의 도피, 실종, 범죄 등을 성욕에 사로잡힌 신체에 의한 행동으로 이해했고, 이는 사회문제로 지적되었다고 한다. 성욕이 자주 발견되는 신체는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신체로 보는 것이다. 1960년대에 여성의 성적 신체를 가시화한 것이 '레스비언'이었는데, 이는 '레스비언'의 신체가 어떤 의미에서 사

"Lesbian Discourses in Mainstream Magazines of Post-War Japan."

44 赤枝香奈子,「戦後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の可視化」.

45 「東京同性愛地帯のインテリ女性たち―バラ十字会のメンバー2人の告白から」.

46 川村邦光,『セクシュアリティの近代』, 102쪽.

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문제였을까. '동성애는 이상(변태)하기 때문에'라는 의미에서 문제시되었던 것일까.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이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1960년대 레스비언에 관한 잡지기사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 물음에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2) '레스비언의 여자 역할' 주목

1960년대 '레스비언'이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가극의 남자 역과 그 여성팬, 남장을 한 바텐더와 바에 모이는 여성, '에스' 등을 포함시켰다. 그렇기는 하지만 당시 '레스비언'이라는 관념에서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은 남성다움을 무기로 하는 '베테랑'이 아니라 여성적인 '초심자', 그 중에서도 예능이나 사교가 아니라 성적인 자극을 즐기는 여성이었고, 성행위에서 '남자 역할'이 아니라 '여자 역할'을 하는 여성이었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1963년 『주간현대』에 게재된 기사 「도쿄 동성애 지대의 인텔리 여성들—장미십자회 멤버 2인의 보고」[47]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타입의 '레스비언'에게 주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기사는 '번창하는 레스비언 바'라는 소제목으로 시작되는데, 바에서 서비스를 하는 남장여자와 그런 여성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소녀를 '레스비언'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이 기사의 관심은 레스비언 바 자체보다도 "지식 계급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더 강력한 조직"을 결성했다는 점에 있다. 그 조직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친밀하게 결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그것은 레스비언 바보다 "한층 본질적이고 비밀스런 레스비언 클럽"이라고 했다. 그리고 멤버가 된 여성들이 그곳에서 즐기고 있다는 성적인 자극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예를 들면 클럽에서는 "알몸이 된 두 개의 하얀 육체가 사랑을 속삭이고 있"고, "서로의 음부를 어루만지며 황홀감"을 느끼고

47 「東京同性愛地帯のインテリ女性たち—バラ十字会のメンバー2人の告白から」.

있다, 멤버인 여성들은 "소녀기에 수음을 배웠다" 등이다.

결국 이 기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상에서 격리된 바(bar)라는 공간에서 금전을 매개로 일시적인 교류를 즐기는 여성들이 아니라 바 밖에 있는 여성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이성애자 남성들의 시야에 들어온 여성이고, 성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이다.

1966년 「깊숙하고 은밀하게 유행하는 "레스비언"—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현대의 이상한 성풍속」이라는 제목의 기사[48]도 레스비언 바, 레스비언 쇼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먼저 "남장을 한 여성이 접객을 하는 가게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쓰고, 그 뒤에 바로 "그러나 그와 같은 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여 앞서 한 말을 번복한다. "진짜 레스비언"이란 "여자이면서 남자의 존재를 개의치 않고 동성에게 사랑과 육욕을 느끼는, 마치 차가운 불꽃같은 도착된 이상한 세계의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고, 바 밖에 있는 레스비언의 '여자 역할' 쪽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 기사에서는 "여자끼리라고 해도 거기에는 분명히 남녀의 관계가 존재한다. 남자 역할을 하는 여성을 이 세계의 은어로는 '다치'라고 하고, 여자 역할(?)을 하는 여성을 '네코' 또는 줄여서 '네'라고 부른다"고 썼다. '남자 역할 = 다치', '여자 역할 = 네코'[49]라는 말 뒤에 K양(21), U양(21), E양(19)이라고 소개한 젊은 '네코' 레스비언의 경력이 소개되었다. U양은 고급 콜걸, E양은 인기 호스티스로, 두 사람은 상당한 미모를 갖추었고 손님으로 오는 남성을 "비열하게 조종하"고 "악랄하게 돈을 갈취하"여 자신의 '다치'에게 바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여성과의 섹스는 남성의 결여를 메우기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밝혔고, 여성끼리의 섹스가 남녀 간의 섹스보다

48 「深く静かに流行する"レスビアン"—女が女を愛する現代の異常な性風俗」, 『週刊漫画サンデー』, 1966年 11月 23日号, 54~57쪽.

49 '다치', '네코'라는 말은 동성애 세계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성행위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쪽을 '다치',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쪽을 '네코'라고 한다. 이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치'는 가부키의 역할의 종류를 나타내는 '다치야쿠: 성인 남자 역할'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발'(勃)이라는 의미도 있다. '네코'는 '고양이'라는 뜻으로, '자고 있는 아이'나 '게이샤'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만족감을 준다고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를 배신하고 (중략) 돌연 '진짜 남성'을 사랑하게 되는 쪽은 네코보다 오히려 다치가 많다"고 썼다. '레스비언' 중에서도 남자 역할보다 여자 역할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여자 역할을 하는 쪽이 '진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의 '레스비언'은 여성 간의 친밀한 관계를 좋아하는 여성을 포괄하면서도 이 개념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레스비언 바'의 바깥 세상, 즉 일상 공간에 있는, 남성이 접근할 수 있는 여자 역할이다. 그에 반해서 바에서 만날 수 있는 이성화된 여성이나 남자 역할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남자다움이라는 기호로 무장한 여성들도 '레스비언'이라는 개념 하에서 그 나름대로의 가시화를 노렸던 점은 전전과 다르지만, 가장 가시화되었던 것은 성행위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여자 역할'의 신체와 그 성행위였다.

3)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신체인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이 남성을 독자로 상정한 대중잡지에 게재된 기사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1960년대의 '레스비언'은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성행위를 기사로 다루었다. 이는 남성 독자의 성욕을 자극하기 좋은 주제였던 것이다. 레즈비언은 1960년대 후반에 포르노 장르가 되었고, 현재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지면을 통해 본 '레스비언'은 남성의 성적 망상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단지 그것으로 일축할 수 없는 측면도 언설화되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레스비언' 표상을 구성하는 수사학(rhetoric)을 추출하고, 그 언설이 여성의 어떠한 섹슈얼리티를 문제로 삼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1967년, 1968년, 1969년에 관련 서적이 연이어 출판되었기 때문이었는지 이전과 비교해서 레즈비언에 관한 잡지기사가 증가했고,[50] 그 양상은 레

50 필자는 '오야 소이치(大宅壯一)문고' 잡지기사 색인을 이용해서 전후부터 2000년까지의 '여성동성애', '레즈비언'에 관한 잡지기사를 수집하고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1963년, 1964년, 1965년, 1966년의 기사는 각 하나씩 밖에 없지만, 1967년은 8개, 1968년은 7개, 1969년은 4

즈비언 붐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였다. 이 논문에서는 1967년부터 1969년까지 3년간의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3년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후 1970년대, 1980년대의 잡지매체가 레즈비언을 다룰 때 구사했던 수사학이 이 기간에 전부 다 나왔다[51]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첫 번째 수사학은 레즈비언의 원인에 관한 것이다. 전술한 대로 남성잡지가 관심을 보인 레즈비언은 일상 공간에 있는 여성(여자 역할)이고, 원래는 남성이 성적으로 접근할 대상이다. 이 수사학은 성적 대상이 되어야 할 여자들이 왜 스스로 '레즈가 되었는가'라는 물음, '그것은 남자들의 탓이다'라고 자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과거에 남자(아버지, 남자 형제, 친척, 애인, 남편 등)에게 심한 봉변을 당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제멋대로이고 배려하지 않는 섹스에 실망했다, 남자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레즈비언의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논조다.

두 번째는 레즈비언의 성행위에 관한 수사학이다. 그것은 여성 간의 성행위는 남성과의 성행위 이상의 쾌락을 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성감대 중에는 '남자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여성은 그 부분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공들여 애무한다", "여성 간의 성적 행위에는 사정이라는 마침표가 없다. 사정을 하는 그 순간에 도달하기 위한 성교와는 다른, 애무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쾌감을 연장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 따라서 밤새도록 애무하고 있을 수 있"[52]기 때문이다. 남녀의 섹스와 '레즈행위'의 비교는, 남성과 레즈비언이 여성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놓고 쟁탈한다는 대립 구도를 연상시킨다. 또 남성은 기교적인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쟁탈전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레즈비언 테크닉'을 배우라는 듯이 상세한 내용을 적었다.

개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의 잡지정보는 杉浦郁子, 「男の猥談に現れる女の性欲」, 113쪽을 참조할 것.

51 1970년대, 1980년대의 잡지매체가 1967부터 1969년까지 3년간에 등장한 수사학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杉浦郁子, 「1970, 80年代の一般雑誌における『レズビアン』表象」에서 구체적으로 논했다.

52 「男のためのレズビアン学入門」, 『週刊大衆』, 1968年 6月 20日号, 100~103쪽.

세 번째는 레즈비언의 규모에 관한 수사학이다. 이것은 레즈비언이 증가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대생이나 'BG(비지니스 걸)'[53] 등 미혼여성뿐만 아니라 기혼여성 또는 남성과 교제 중인 여성이 여성과 성 교섭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레즈비언의 증가를 상상하게 했다. 또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은 유동적인 것이라는 묘사도 있었는데, 그것도 레즈비언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때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은 변할 수 있다. 남자 역할을 하는 여성에게 매혹되어 여자 역할로 응대하다가 '레즈의 맛'을 알았는데, 그 후 이번에는 자신이 남자 역할이 되어서 '레즈 성향'이 없는 여성을 유혹한다. 여성이 호기심에서 한 번 '레즈비언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 남자 역할을 하는 상대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남자 역할도 해보게 되고, 그 후에는 이 세계를 개척하는 입장이 된다. 이런 식의 기사는 남성들이 '아내'의 후보를 빼앗기고, 동시에 '레즈비언'은 한도 없이 증가한다는 상상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상의 수사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플롯이 완성된다. 요즘 여성들은 남성과의 교제에 실망하고 있다. 한편 여성 간의 성행위는 남성과의 성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을 여성들에게 선사한다. 그 때문에 젊은 독신여성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도 여성과의 성행위에 열중하고 점차 레즈비언이 되어 간다.

이 플롯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레즈비언을 두려워하는 남성의 불안이다. 레즈비언은 포르노의 소재였는데, 남성 독자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갖가지 양상으로 '살이 붙여져서' 남성의 연애시장을 침식하는 위협으로서 레즈비언의 이미지가 고착되어 갔다. 그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레즈비언의 기교를 배워라'라고 남성들을 고무하는 기사는 레즈비언의 성적인 측면을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위협은 더욱 증폭되어 갔다.

53 'BG(Business + Girl)'는 일하는 여성의 총칭으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후반 무렵까지 사용된 일본식 영어.

이러한 기사는 여성에게 향하는 여성의 성욕을 '이상'한 것으로 문제 삼는다는 것보다는 남성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 개의 수사학은 모두 반드시 능동적이어야만 하는 남성에게 성적인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능동성은 남성의 본성이고, 특히 성적인 면에서 능동성을 발휘하는 것은 '남성다움'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남성은 적극성을 가지고 여성의 성욕을 만족시킴으로써 '남자가 된다'. 능동적인 성욕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남성다움'에 상처를 내는 일이다. 레즈비언에 관한 기사는 남성에게 '남성다움'을 점검시키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할 때 유지되는 '남성다움'의 복권을 제창하고 있다. 그것은 여성의 성적 신체를 들먹여서 남성의 '남성다움'을 문제 삼는 언설인 것이다.

이 언설에 따르자면 레즈비언의 여자 역할은 어떠한 계기로 눈뜬 성욕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성욕의 주체가 되어 남성 이상의 성적 쾌감을 얻는 여성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실로 성적인 주체성을 획득한 여성인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와 같은 여성의 성적 신체다. 레즈비언은 성욕이 '여성을 향해 있다'는 이유보다는 성욕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특징에서 주목되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배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1960년대의 레즈비언 표상의 기저가 된 규범은 헤테로섹시즘이다. 여성의 성욕을 수동적인 것으로 위치시키고 여성의 성욕이나 성적인 쾌감은 남성의 능동적인 성욕의 대상이 되었을 때'만' 허용된다는 헤테로섹시즘은, '남성의 성욕은 능동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남성의 능동성에 지배되지 않는 여성의 성욕은 공포스러운 것이다. "근대의 성도덕에 있어서 '정상적인 여성'이란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서는 성적인 존재를 유지하면서, 자발적으로는 성적 요구를 하지 않는 여성, 즉 남성의 성적인 주체화를 교란시키지 않는 여성"[54]이고, '이상한 여성'이란 남성의 성적인 주체화를 교란시키는 여성이다. 1960년대의 레즈비언은 그와 같은 '여성'이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54 小田亮, 『性(一語の辞典)』, 80쪽.

4. 레즈비언의 '섹슈얼리티의 전후사'를 향하여

1) '성적 주체로서 객체화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레즈비언에 관한 기사는 남성의 성적 주체화가 여성을 성적 객체로 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결과적으로는 성적 주체로서 행동하는 여성을 표출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레즈비언이 포르노로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 남성이 자신들의 성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문 채로 오로지 여성의 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여성이 성적 객체가 되어버리는 것, 바로 이 점이다. 레즈비언은 이성애자 남성에게 안심하고 여성을 객체화할 수 있는 주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주체화할 수 있는 주제인 것이다.

'여성의 신체가 성적 주체로서 객체화된다.' 이는 1970년대에 들어 가속도가 붙어서 1980년대까지 잡지매체를 석권했다. 그 사이에 때때로 유행과 연결되면서 1960년대에 등장한 수사학과 플롯이 반복되었다. 예를 들면 "남성에게 상처를 받은 후에 여성의 부드러움으로 치유를 받는다"고 하면서 '남성 기피'의 원인으로 강조하는 기사. "여성의 몸은 여성이 가장 잘 안다", "가려운 곳을 긁는다", "사정으로 끝나는 남녀의 섹스와는 달리,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레즈비언 테크닉'을 집요하게 묘사하는 기사. "대학생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누구나 그런 성향은 있다'라는 등 그 확대와 침투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기사. 모두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여성이 그려졌는데, 이러한 기사에는 여성의 누드사진이 게재되는 경우도 많았고, 포르노로 소비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55]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는 이성애자 남성의 영역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 날조된 레즈비언이 범람했다. 그것은 여기서 분석한 것처럼 관점에

55 杉浦郁子,「1970, 80年代の一般雑誌における『レズビアン』表象」.

따라서는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그리고 있지만, 동시에 '성적으로 분방한 여성'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간에 고착시켰던 것이다. 레즈비언은 그와 같은 편견을 흩뿌리는 관념이고, 또 언제 어디서든 순식간에 여성을 성적 객체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56] 관념이다.

2) 1971년 이후의 레즈비어니즘을 '성욕'의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에 대한 현대적 의의

1971년에는 레즈비언들이 집합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고,[57]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걸쳐서 정력적인 아이덴티티 정치학(politics)이 행해졌다.[58]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모두 레즈비언 포르노가 범람하는 사회 속에서 전개된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레즈비어니즘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음은 당연하다. 즉, '성에 대해 분방하다'는 고정관념에 대항하여 성적 주체로서 레즈비언을 표현하고, 또한 레즈비언을 성적으로 객체화하는 힘에 저항하는 과제다.

레즈비언 카테고리를 사이에 두고 '여성의 신체가 성적 주체로서 객체화된다'라는 인식이 대중매체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한편, 젠더 비대칭적으로 구축된 '성욕' 개념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견고하다. 대중매체에서 일상생활로 눈을 돌려보면, 여성이 여성에게 향하는 성욕은

56 이것은 예를 들면 '상사에게 커밍아웃을 했더니, 애인과 나의 성행위를 보고 싶다, 3명이서 섹스하고 싶다, 라고 집요하게 얘기했다'라는 어떤 레즈비언의 체험담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性意識調査グループ, 『310人の性意識 ―異性愛者ではない〈女〉たちのアンケート調査』, 七つ森書館, 1998, 225쪽).

57 일본 최초의 레즈비언 서클 '와카쿠사노카이'(若草の会)가 시작된 것이 1971년이다. 회장은 '레즈비언'으로서 잡지와 텔레비전에 나갔고 회원 모집을 했다. 또 1970년대 후반에는 미니 커뮤니티 잡지가 3개 발행되었다. 『レスビアンの女たちから全ての女たちにおくる雑誌 ―すばらしい女たち』(1976年 11月), 『ザ·ダイク』(1978年1月に第1号, 6月に第2号), 『ひかりぐるま』(1978年4月に第1号, 9月に第2号).

58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영향력이 있었던 활동 두 개를 들어보자. 하나는 레즈비언을 위한 공간 '레구미 스튜디오 도쿄'(れ組スタジオ·東京)의 개설(1987~2013), 『女を愛する女たちの物語』의 출판(1987)으로 이어졌던 활동으로, 현재의 50대 중반부터 60대 여성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또 하나는 가케후다 히로코(掛札悠子)가 선도한 일련의 활동으로 미니 커뮤니티 잡지 『LABRYS』 창간(1992)과 레즈비언과 바이섹슈얼 여성을 위한 센터 〈LOUD〉의 개설(1995)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의 40대부터 50대 초반의 여성들이 중심이 된 활동이다.

남성이 남성에게 향하는 성욕과 비교해서 훨씬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여성의 성욕은 변함없이 남성에 의해 성적인 대상이 되었을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되거나 원래 희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간의 농밀한 관계는 성욕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애매한 감정(애정이나 우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이해되기 쉽다.[59] 현대 일본의 레즈비언 차별의 특징은 그 성욕이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도 타자에 의해서도 발견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레즈비언 차별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소수자'가 아니라 '불가시성'을 문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차별을 고발하는 논자들의 공통된 견해다.[60] 필자도 레즈비언의 성욕의 가시화가 차별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욕의 가시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지도 모르지만 성적 신체와 함께 부여된 고통과 배제의 현실이 드러남으로써 사회는 필요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대중매체가 레즈비언의 성욕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그러한 탓에 현실의 레즈비언의 성적 신체는 잘 보이지 않게 된,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레즈비어니즘이 발신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성욕이라는 테마를 피해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발신은 '성욕'의 관점에서 분석되지 않았다. 이것이 전후사의 맹점이다.

레즈비어니즘의 언설은 성적 주체화/객체화의 다이내미즘을 시야에 넣고, 어떠한 징후/외견/특징/관계/행동/사상 등이 '레즈비언'이라는 '성적 주체'에 속하는가, 무엇이 '성욕'을 둘러싼 경험으로 인식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언설은 '성욕'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재구축하는 것이

59 杉浦郁子,「レズビアンの欲望 / 主体 / 排除を不可視にする社会について―現代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差別の特徴と現状」, 好井裕明 編著,『セクシュアリティの多様性と排除』, 明石書店, 2010, 55~91쪽.

60 掛札悠子,「レズビアンはマイノリティか?」,『女性学年報』15, 1994, 25~32쪽; 池田久美子,『先生のレズビアン宣言 ―つながるためのカムアウト』, かもがわ出版, 1999; 渡辺みえこ,「他者の表象はどのように可能か」,『女性学』8, 2000; 堀江有里,『〈レズビアン・アイデンティティ〉の可能性 ―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研究の構築に向けて』(2006年度博士学位論文 大阪大学大学院), 2006.

기도 했던 것이다. 그것은 불가시성의 극복이라는 과제에 어떠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었을까. 전후사를 '성욕'의 관점에서 '섹슈얼리티의 역사'로서 재고하는 것은, 레즈비언의 성적 신체의 가시화를 둘러싼 현대적 과제를 생각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참고문헌

古川誠(1993),「同性愛者の社会史」,『わかりたいあなたのため社会学·入門―常識破壊ゲームとしての社会学·全20講座』, 宝島社.

古川誠(1993),「恋愛と性欲の第3帝国―通俗的性欲学の時代」,『現代思想』21(7).

古川誠(1994),「セクシュアリティの変容： 近代日本の同性愛をめぐる3つのコード」,『日米女性ジャーナル』17.

古川誠(1995),「同性『愛』考」,『イマーゴ』6(12).

杉浦郁子(2010),「レズビアンの欲望 / 主体 / 排除を不可視にする社会について―現代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差別の特徴と現状」, 好井裕明 編著,『セクシュアリティの多様性と排除』, 明石書店.

杉浦郁子(2013),「男の猥談に現れる女の性欲―1960年代雑誌記事の『レズビアン』言説」, 中河伸俊·赤川学 編,『方法としての構築主義』, 勁草書房.

澁谷知美(2013),『立身出世と下半身―男子学生の性的身体の管理の歴史』, 洛北出版.

小田亮(1996),『性(一語の辞典)』, 三省堂.

羽太鋭治·澤田順次郎(1915),『変態性欲論』, 春陽堂.

赤枝香奈子(2011),『近代日本における女同士の親密な関係』, 角川学芸出版.

赤枝香奈子(2014),「戦後日本における『レズビアン』カテゴリーの定着」,『セクシュアリティの戦後史』, 京都大学学術出版会.

前田直哉(2011),『男の絆―明治の学生からボーイズ·ラブまで』, 筑摩書房.

竹村和子(1997),「資本主義とセクシュアリティ―[ヘテロ] セクシズムの解体へ向けて」,『思想』879.

川村邦光(1996),『セクシュアリティの近代』, 講談社.

Sugiura, Ikuko(2006), "Lesbian Discourses in Mainstream Magazines of Post-War Japan: Is Onabe Distinct from Rezubian?" *Journal of Lesbian Studies*, 10(3/4).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한정선(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강사)이 번역하였다.